

# 청소년의 참여행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성희\*, 김웅수\*\*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The Effect of Youth Participation Behavior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ung-Hui Cho\*, Woong-Soo Kim\*\*

Dept. of Social Welfare, Hyeongsung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Hani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참여행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수행을 위해 J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1,077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경로분석 방법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참여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접적인 영향력과 참여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참여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과 참여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 참여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으며, 특히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참여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의 참여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하기 위한 융복합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참여행동,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청소년,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 between participation behavio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adolescents. Using the data of 1,077 adolescents residing in J region, this study used the path analysis to see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results, particip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ad direct effec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ediated b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articipation behavior had indirect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adolescents, which can b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n terms of overcoming the limit of presenting direct effects of facto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the basis of the results, convergency suggestions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adolescents were discussed.

**Key Words** : Participation Behavio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dolescent, Mediating Effect

Received 10 October 2017, Revised 24 November 2017  
Accepted 20 December 2017, Published 28 Dec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Woong-Soo, Kim  
(Dept. of Social Welfare, Hanil University)  
Email: holyws@hanil.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은 대부분 높은 교육열을 토대로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있다. 직업은 삶의 있어서 근간을 이루는 척추와 같이 중요하며,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제 중 하나인 재능과 적성에 맞게 진로선택을 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직업을 결정하는 것은 이와 관련된다. 인생의 수레바퀴의 한 축을 차지하는 직업은 청소년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하여 청소년 시기는 더욱 중요하다. 청소년 시기에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분야를 탐색함과 동시에 잠재적인 재능을 찾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진로준비는 학교 내에서 실시되는 진로검사와 상담 위주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진로체험과 같은 활동위주의 방식보다는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로 인해 청소년들은 직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탐색 없이 대학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성적에 맞게 자신의 전공을 찾아가곤 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성적에 맞추어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 없이 대학에 진학한 뒤 학업에서의 중도 탈락, 미래에 대한 높은 불안감, 졸업에 대한 부담감 및 막연한 취업준비로 인한 어려움 등을 경험하게 된다[1].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9년부터 실시된 창의적 체험활동과 2013년도 도입된 자유학기제는 진로검사와 상담위주의 진로탐색 방식을 넘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해 잠재적 재능 발견하고 자기개발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시행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는 청소년활동이 단순히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사회와의 다양한 현장에서의 활동을 토대로 진로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2]. 그러나 이러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청소년의 진로활동은 여전히 학교를 중심으로 교과목에서 다루어지는 수준에서 기획되고 상담과 진로검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교는 진로상담 교사를 배치하여 진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욕구에 기반하여 기획되거나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3].

교육철학자 페스탈로치는 머리, 가슴, 손을 활용한 교

육을 실행하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즉, 머리는 교과목 위주의 학습이지만, 가슴과 손은 이론적인 학습이 아닌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를 통해서 시작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결국 청소년기에는 교과교육 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개인 및 사회적 역량까지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활동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이 향상되었으며[4], 참여 수준에 따라서 임파워먼트의 역량이 향상되었다[5]. 이를 고려하여 볼 때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결정은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자신의 삶의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역량을 키우는 것과 연관된다. 즉 청소년 진로활동은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에 균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진로활동은 현장중심의 환경과 더불어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가 수반될 때에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청소년의 참여행동은 진로준비행동과 연관성이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이 아닌 직업정보를 수집하고,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참여행동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활동이다[6]. 청소년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청소년활동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구체화하는 진로준비행동을 하게 된다. 즉,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참여 활동이 확대될수록 진로태도 성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진로준비행동은 청소년기에 다양한 참여활동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참여행동 중에 미래의 진로나 직업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받기도 한다.

청소년기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활동 경험이 요구되는 시기로 자원봉사나 동아리활동, 체험활동 등의 과정을 통해서 진로선택과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8]. 또한 청소년 참여행동은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 의식을 높이게 할 수 있다. 참여환경은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9]. 특히 청소년 참여행동은 생활에 필요한 의사결

정기술, 창의성, 공동체성 등의 다양한 역량을 강화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다양한 참여행동은 미래의 진로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형성에 필요한 기술들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10].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진로목표를 수행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진로결정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1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은 진로영역에 대한 결정행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높으며, 자신의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고 이에 대한 확신이 높다. 결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 결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것이며 이를 실현가능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 청소년기에 가정, 학교에서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고, 지역사회내의 현장 체험이 이루어지는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높아진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과 관계가 있으며,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12].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직업현장에서 진행된 인턴쉽 참여 청소년은 통제집단에 비해서 진로결정에서 있어 자기효능감과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인턴쉽에 참여한 청소년은 진로결정에 있어서 자신감이 높았으며,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진로에 대한 계획수립과 행동을 수행하게 되었다[13].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에 청소년의 참여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사회적 지지나 학교생활적응, 부모와의 애착,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12]. 청소년의 참여행동에 관한 연구의 경우에는 공동체의식, 의사결정능력,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청소년의 내적인 역량에 관한 연구결과들로 진로준비행동과 같은 태도변화와 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5, 10].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참여행동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갖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과

정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진로를 위해 교육, 사회복지, 지역사회정책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융복합적인 접근과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 다양한 체계들의 융복합적인 관계에 기반한 개입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청소년진로활동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J 지역 소재의 중·고등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유의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선정한 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조사기간은 2014년 7월 2일부터 7월 17일이었으며 자기기입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1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각 설문지는 조사자가 학교에 방문하여 담임교사와 함께 설문지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후에 조사를 진행하였다. 최종 수거된 설문지 1,100부 중에서 설문항목이 누락되거나 일관된 답변현상을 보인 23부를 제외하고 총 1,077부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 2.2 측정도구

#### 2.2.1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의 측정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패널연구에 포함되어 있는 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로나 전공을 위한 정보 수집, 관련 대상자와의 접촉, 진로지식의 정확한 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측정도구의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최소 6점부터 최대 30점의 응답 범주를 갖는다. 진로준비행동 측정결과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위한 준비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82로 나타났다.

### 2.2.2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청소년의 참여행동은 문화 활동, 교류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사회참여 활동, 청소년성취포상제도와 같은 활동에 있어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김윤나와 동료들의 연구[5]에서 활용된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Barker가 제시한 참여수준 이론을 적용하여 개발된 도구로 방관자와 같이 참여활동에 있어서 역할이 없는 수준부터 즉각적인 단독의 권한을 가지고 참여활동을 수행하는 단독리더의 수준을 구분하는 거트만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행동 측정도구의 응답의 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청소년 참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2.2.3 매개변수

매개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etz, Klein, Taylor[14]의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를 기반으로 박가열[15]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통해 측정되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어떤 수준의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형태이며, 최소 10점에서 50점의 응답 범위를 갖는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확신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91로 나타났다.

### 2.2.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주요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위해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가족의 경제수준, 성적수준을 변수를 활용하였다. 성별은 남성(1), 여성(2)으로 부호화하여 활용하였고, 연령은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가족의 경제수준은 매우 어려운 편(1)부터 매우 잘 사는 편(5)으로 구성하였고, 학교성적 역시 매우 못하는 편(1)부터 매우 잘하는 편(5)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 2.3 자료분석방법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접적인 영향력과 청소년의 참여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간접적인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을 수행하기 이전에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분석, 결측값 분석, 마할라노비스 거리 통계량, 첨도, 왜도, 공차, 분산팽창요인의 검토를 통해 분석 자료의 정확성과 정규성, 등분산성,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연구모형의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참여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접적인 영향력과 진로준비행동이 매개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에 기반한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각 경로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절대적합지수로  $\chi^2$ 검증 및 자유도를 고려한 표준  $\chi^2$ 검증(CMIN/DF)과 적합도지수(GFI), 비교적합지수(CFI), 표준화 잔차평균자승이중근(SRMR),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SEA)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갖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고, 통계적인 분석에는 SPSS 23.0과 AMOS 23.0 프로그램이 활용되었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전체 연구대상 청소년 1,077명 중 남학생 410명(38.1%)에 비해 여학생이 667명(61.9%)으로 연구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연령 분포에서는 17-19세인 경우가 557명(51.7%), 14-16세인 경우가 506명(47.0%)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16.53세( $SD=1.49$ )로 나타났다. 가족의 경제적인 수준에서는 보통인 경우가 493명(73.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평균 3.02( $SD=.60$ )의 수준을

보였다. 청소년들의 학업 성적도 보통인 경우가 530명 (49.2%)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평균은 2.95(SD=.91)로 나타났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077)

| Categories     |              | N           | %    |
|----------------|--------------|-------------|------|
| Gender         | Male         | 410         | 38.1 |
|                | Female       | 667         | 61.9 |
| Age            | 12-13        | 14          | 1.3  |
|                | 14-16        | 506         | 47.0 |
|                | 17-19        | 557         | 51.7 |
|                | <i>M(SD)</i> | 16.53(1.49) |      |
| Economic Level | 1(very low)  | 14          | 1.3  |
|                | 2            | 121         | 11.2 |
|                | 3(middle)    | 493         | 73.6 |
|                | 4            | 127         | 11.8 |
|                | 5(very high) | 22          | 2.0  |
|                | <i>M(SD)</i> | 3.02(.60)   |      |
| Academic Grade | 1(very low)  | 59          | 5.5  |
|                | 2            | 239         | 22.2 |
|                | 3(middle)    | 530         | 49.2 |
|                | 4            | 191         | 17.7 |
|                | 5(very high) | 58          | 5.4  |
|                | <i>M(SD)</i> | 2.95(.91)   |      |

### 3.2 주요변수들의 특성 및 상관관계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주요하게 검토한 변수들의 주요 특성, 변수간의 상관관계 특성, 경로모형의 전제조건에 대한 확인을 위한 연구데이터의 특성은 <Table 2>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청소년들의 진로준비행동은 평균 3.10(SD=.79)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측정도구의 응답범주를 고려하여 볼 때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경우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인 청소년의 참여행동은 평균 2.78(SD=.1.24)로 나타나 보통보다 낮은 수준의 참여행동이 수행되고 있으며, 청소년들 간의 상대적인 차이가 큰 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평균 3.57(SD=.72)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청소년들의 진로준비행동과 참여행동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진로준비행동에 참여행동( $r=.199, p<.001$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r=.531, p<.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참여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205, p<.001$ ). 일변량 이상치와 다변량 이상치, 왜도, 첨도, 공차, 분산팽창요인,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계수 및 산점도를 통한 시각적 확인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경로분석의 전제조건이 되는 연구모형에 포함될 변수들의 정규성, 선형성, 등분산성, 다중공선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여 모형이 왜곡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2> Variables' Characteristics and Correlation

| Categories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Participation Behavior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1                           |                        |                                      |
| Participation Behavior               | .199***                     | 1                      |                                      |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531***                     | .205***                | 1                                    |
| <i>M</i>                             | 3.10                        | 2.78                   | 3.57                                 |
| <i>SD</i>                            | .79                         | 1.24                   | .72                                  |
| minimum                              | 1                           | 1                      | 1                                    |
| maximin                              | 5                           | 5                      | 6                                    |
| skewness                             | -.151                       | .355                   | -.099                                |
| kurtosis                             | .380                        | -.447                  | .150                                 |

\* $p<.05$ , \*\* $p<.01$ , \*\*\* $p<.001$

### 3.3 연구모형 분석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청소년의 참여행동을 독립변수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성별, 연령, 경제수준, 성적수준을 통제변수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경로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의 직·간접적인 경로들을 검증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연구모형의 자유도를 높이고, 간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기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통제변수의 경로들을 수정하여 최종적인 연구모형을 결정하였다. 연구모형의 수용 여부는 모형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으며, 최종 연구모형의 분석결과는 <Table 3>과 [Fig. 1]에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제시된 연구모형의 적합도 중 절대적합도지수인  $\chi^2$ 검증 결과  $\chi^2=6.350(df=5, p>.05)$ 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검토한 적합도 지수들 역시 GFI=.999, CFI=.998, SRMR=.016, RMSEA=.016으로 높은 수준의 모형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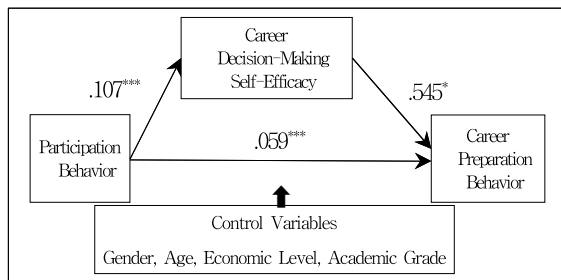
도를 보였으며,  $\chi^2$ 검증과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선행연구에 기반한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 모형은 수용할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갖추고 있었다.

<Table 3> Parameter Estimate and Model Fit

| Path   | B    | S.E. | critical ratio | $\beta$ | SMC  |
|--|------|------|----------------|---------|------|
| Participation Behavior→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107 | .017 | 6.234***       | .184    | .074 |
| Participation Behavior→Career Preparation Behavior               | .059 | .016 | 3.610***       | .093    | .322 |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Career Preparation Behavior | .545 | .028 | 19.306***      | .497    |      |

$\chi^2=6.350(df=5, p>.05)$ , CMIN/DF=1.270, GFI=.998, CFI=.998, SRMR=.016, RMSEA=.016

\* $p<.05$ , \*\* $p<.01$ , \*\*\* $p<.001$



\* $p<.05$ , \*\* $p<.01$ , \*\*\* $p<.001$

[Fig. 1] Research Model with Parameter Estimate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연구모형의 주요 경로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참여행동( $B=.059, p<.001$ )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B=.545, p<.001$ )은 모두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참여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참여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의 전체 변량 중 약 32.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참여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참여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B=.107, p<.001$ ). 이는 청소년의 참여행동 수준이 높아질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참여행동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변량 중 약 7.4%를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참여행동이 진로준비행동에 갖는 영향력 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갖는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참여행동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부트스트래핑 방법(표집횟수 1,000회)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에 의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의 하한값(.065)과 상한값(.116)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참여행동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으므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참여행동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한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참여행동의 매개효과는  $B=.059(\beta=.092)$ 로 나타났다.

<Table 4> Mediating Effect Analysis

| Path  | B    | $\beta$ | 95% CI    | Mediating Effect         |
|---|------|---------|-----------|--------------------------|
| Participation Behavior→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Career Preparation Behavior | .059 | .092    | .065~.116 | partial mediating effect |

<Table 5>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 & Total Effects

| Path   | Direct effect B( $\beta$ ) | Indirect effect B( $\beta$ ) | Total effect B( $\beta$ ) |
|--|----------------------------|------------------------------|---------------------------|
| Participation Behavior→Career Preparation Behavior               | .059(.093)**               | .059(.092)**                 | .118(.184)                |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Career Preparation Behavior | .545(.497)***              | -                            | .545(.497)***             |

\* $p<.05$ , \*\* $p<.01$ , \*\*\* $p<.001$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참여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갖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정리하여 <Table 5>에 제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참여행동은  $B=.059(.093)$ 의 직접효과와  $B=.059(.092)$ 의 간접효과를 가지고 있어  $B=.118(.184)$

의 총효과를 갖고 있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B=.545(.497)$ 의 직접효과를 갖고 있었다.

#### 4.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의 특성을 살펴보고, 청소년들의 참여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과 매개효과의 간접적인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청소년 1,077명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경로분석을 통하여 검증한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주요 결과 중 첫 번째로 청소년들의 진로준비행동이 가지는 변량을 설명함에 있어서 참여행동을 독립변수로 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한 연구모형은 절대적합지수를 비롯한 다양한 모형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볼 때 통계적으로 수용할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진로준비행동을 검토함에 있어서 참여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인 개입에 있어서 청소년의 참여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가지는 관계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기반하여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청소년의 참여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증진과 관련된 교육기관, 청소년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이와 관련된 학문영역이 융복합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인 개입방안을 도출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청소년의 사회적인 참여행동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짐과 동시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참여행동의 영향력 중 직접적인 영향력에 대한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7, 8]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현재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인 맥락에 견주어 보면, 사회적으로 다양한 참여행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약가진 청소년을 둘러싼 맥락으로 인해 청소년의 참여행동이 낮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낮아지게 되며,

이와 동시에 낮은 수준의 참여행동은 낮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게 되어 진로준비행동을 낮추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청소년 시기의 중요성과 본 연구모형을 통해 검증된 관계구조를 다시 한번 고려하여 볼 때 청소년기의 사회적인 참여행동의 증진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육기관, 청소년기관,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의 참여행동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들의 통합적인 관점 및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기관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참여행동을 증진하기 위한 아카데미, 워크숍, 경진대회를 비롯하여 청소년 기관과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사회참여 관련 포럼, 동아리, 기자단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관련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각 사업들은 청소년 개별 학문의 배경 하에서 개별 기관의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 및 개별 기관의 역할에 대한 조정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사회참여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중심으로 형성된 플랫폼을 토대로 진로지원과 연관된 복지, 교육, 도시계획 등의 다양한 융합적 프로젝트 및 네트워크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청소년기의 진로준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볼 때 청소년의 참여행동은 단순히 그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과 관련하여 심리적인 요소인 자기결정 효능감과 행동적인 요소인 준비행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각 학문과 서비스 기관간의 융복합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접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12, 13]를 지지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관계를 맺게 되는 주변인들과의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자신에게 지지적인 형태로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학교와 가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

소년들이 맺게 되는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영역의 교사를 비롯하여, 상담 영역의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사, 사회복지영역의 학교사회복지사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교사 및 또래 집단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과 관련된 진로동아리 활동, 자율학기제 도입에 따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또래집단 내에서 상호 지지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이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족 간 의사소통 및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인 지역사회복지관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운영 중인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한국사회 내에서 청소년의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 및 의사소통의 왜곡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가족 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제공은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직접적인 진로관련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하며,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의 진로관련 활동의 운영방식 변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진로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함에 있어서 청소년이 스스로의 역량을 통해 계획, 수행, 평가를 담당하는 것은 학습에 있어서 자기조절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또한 셀프리더십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결국 청소년진로준비행동은 참여 행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과 사회적지지를 통해서 형성되는데, 학교급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학교 시기는 또래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진로체험 및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통한 사회자본, 사회적 역량 향상과 진로영역을 인식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시기는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직업현장의 구성원과의 상호작용과 지지를 통해서 진로발달과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참여행동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연구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참여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접적인 영향력과 참여행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참여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 역시 연구가 가지는 의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및 진로준비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의 수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수행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일반화를 위한 충분한 수준의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해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향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조사를 통해 극복되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청소년의 참여행동의 영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은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차원의 변수들에 대한 검토 역시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검증되어지길 기대한다.

## REFERENCES

- [1] H. S. Kim, J. H. Lee, M. O. Yang, "A Qualitative Study on living as a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1, pp. 565-574, 2014.
- [2] E. M. Sung, H. J. Jung, "Community's Participating Strategies for Facilitating Experience-based Youth Career Educ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6, No. 4, pp. 49-63, 2013.
- [3] G. H. Jung, "Community-based Career Guidance Education for Youth." *The Journal of Civic Youth Studies*, Vol. 5, No. 1, pp. 1-35, 2014.
- [4] G. H. Jung, W. S. Kim, K. H. Kim, "The study on the effect citizenship recognition of Youth Activity in Jeonbuk's." *Youth,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10, No. 4, pp. 179-198, 2013.
- [5] Y. N. Kim, G. H. Jung, Y. J. Choi, "The effect of Youth Self-Governing Activity on empowerment."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Vol. 12, No. 3, pp. 1-23, 2010.



[6] I. H. Jung, B. C. Lim, "Students of factors affecting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entering on students studying Dental Technology Daegu·Gyeongbuk a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onvergence, Vol. 3, No. 3, pp. 13-19, 2012.

[7] B. O. Choi, "The Effects of Community-based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on Career-related and Emotion-related Factors." Teacher Education Research, Vol. 53, No. 4, pp. 693-705, 2014.

[8] B. K. Song, J. B. Park,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activity experience and readiness of career choic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19, No. 2, pp. 33-50, 2006.

[9] W. S. Kim, W. S. Lee, S. H. Cho, "Mediating Effects of Prosocial Behavior in the Relation Between Youth Participation and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Vol. 15, No. 2, pp. 221-228, 2017.

[10] Y. N. Kim, "A Study on the Analysis of affecting policy activities factor to Youth leaders life competencies."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Vol. 10, No. 2, pp. 19-30, 2012.

[11] K. M. Lee, C. H. Bum, "A convergenc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golf major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3, pp. 265-273, 2017.

[12] J. J. Lee, C. G. Chun,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School Life Adapt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 23, No. 1, pp. 241-255, 2016.

[13] E. S. Cho, "The Effects of The Youth Internship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4, No. 4, pp. 191-208, 2011.

[14] Betz, N. E., Klein, K., & Taylor, K.,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4, pp. 47-57, 1996.

[15] K. Y. Park, "The Effect of Work-based Experiential Learning on Career Planning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Adolescence."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5, No. 3, pp. 115-130, 2008.

조 성 희(Cho, Sung Hui)



- 2001년 2월 :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행정학사, 문학사)
- 2003년 8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1년 2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가족복지, 청소년복지, 가족치료
- E-Mail : chosh@uhs.ac.kr

김 응 수(Kim, Woong Soo)



- 2001년 2월 :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3년 2월 :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 2007년 7월 : 브레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철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청소년복지, 교정복지
- E-Mail : holyws@hanil.ac.kr